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50호 현대불교  
2009년 9월 23일(음 8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땅에 박힌 돌 하나도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저는 이날까지 제가 산다고 생각해 본 예도 없고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본 예도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덕 스님네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해 주시고 같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잘하든 모자라든 오늘날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그저 내 정성이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누구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자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佛敎)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다른 종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뉴욕에 갔을 때 기독교 가톨릭교 교인들과 신부님들이 모인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불교는 그저 미신의 소굴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했죠. "일체 미생물에서부터 생물은 전부 불(佛)이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배우는 것이 교(敎)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불교 안에서 살면서 불교를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럼 당신네들도 귀신이었네." 하고요.

그렇듯이 불교라는 단어 자체가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해도 불교는 되남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우리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인 줄 알지 마시고 불자들이나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다' 하면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삼계간 온 누리를, 우주간 모두를 한데 합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불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대로 실지이고 그대로 진리이고 그대로 우리 삶입니다. 따로 불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가시는 그 자체가 그대로 불교며 그대로 여여하며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나질 않았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상대성 원리라든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든 부처님 아님이 있었습니까마는 백지장 하나 사이로 부처다 중생이다 하겠죠. "우리 인생은 허허바다에 배 띄워 놓은 거와 같으니라." 한 것은 이 몸을 비유한 거죠. 여러분 몸속에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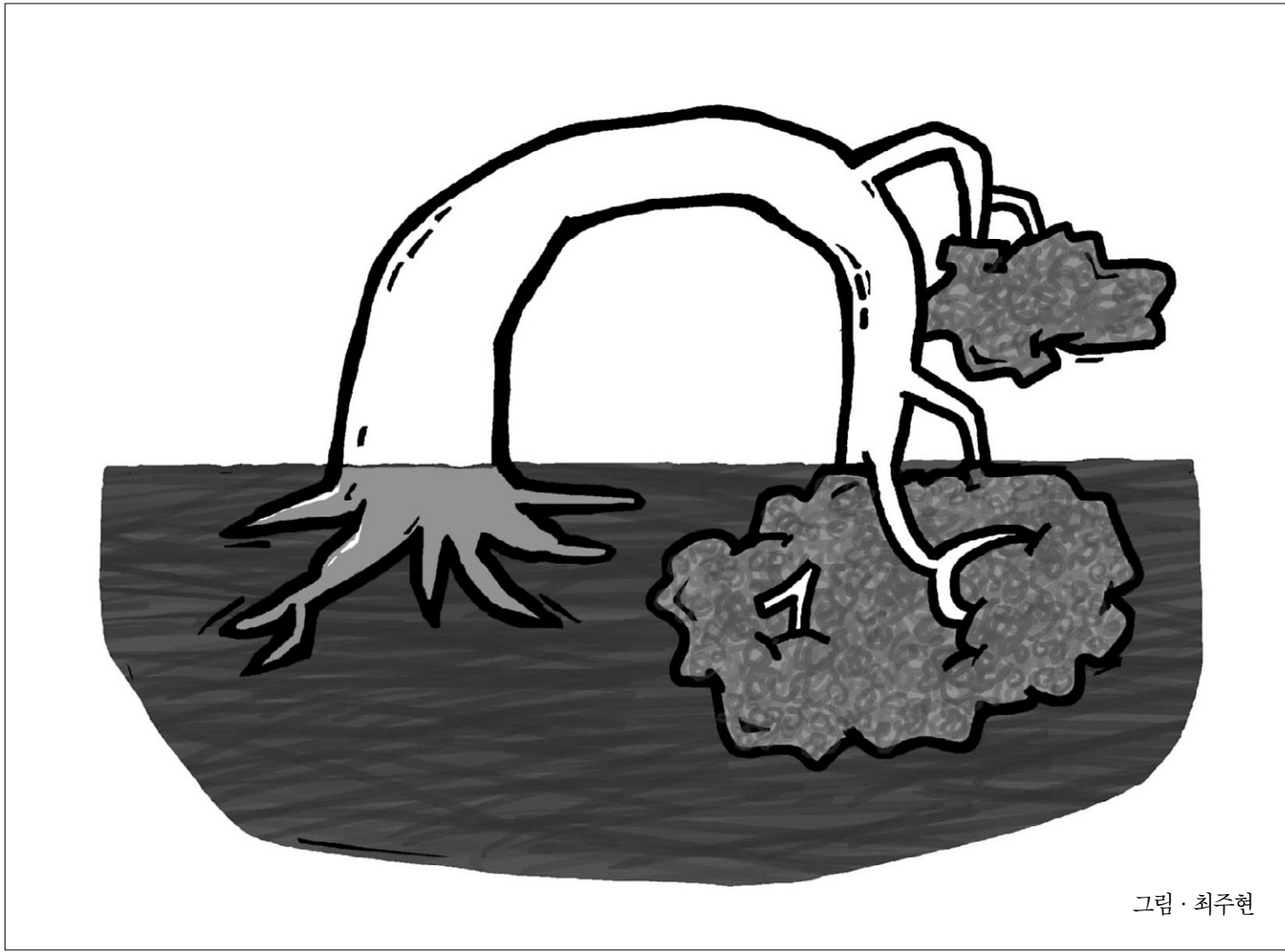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들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천차만별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몸 하나가 우주와도 같고 별성아도 같고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이 안에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벌어진 그 모두를 중심으로 비유했거든요. 이 몸뚱이는 배로 비유하고 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중심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 파도가 치고 온통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려고 하고 그럴 때에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선자에게 입일해서 모두 같이 하고 마음을 편안히 뛰야 그 배는 뒤집히지 않고 갈 곳까지 갈 겁니다.

비유컨대 콩을 심어서 콩나무가 됐다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죠? 콩씨가 콩씨로 화했으니까요. 여러분 모습이 콩씨라면 바로 그 콩씨는

또 콩씨를 열리게 합니다. 자기한테 자기 콩씨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는다면 아마 백년이 걸려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콩나무가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입니까? 우리 육신을 일거수일투족 끌고 다니는 것은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 뿌리가 한 나무 전체를 안고 성장시킵니다. 지분과 수분 윗부분을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해서 나무를 성장시킵니다. 푸르르게 살게 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내 고깃덩어리를 믿어라.' 하신 건 아닙니다. 내 고깃덩어리를 '따르라' 했지 '믿어라' 한 거는 아닙니다. 그

러니 우리가 왜 편안치 않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뚱이 속에 천차만별의 의식이 있는데 우리 몸뚱이는 그 생명들에게 뭐가 됩니까? 관리인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집이 됩니다. 집!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 한 컵을 잡수신다 하더라도 혼자 잡수시는 게 있을까요? 더 붙어 같이 먹는 거지 내가 먹었다고 내놓을 수가 없죠. 안 그럴까요?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더불어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색(色)은 일체 공(空)했으니라. 공이 모두 색이니라.' 하셨습니다. 왜 공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찰나찰나 화해서 바뀌 가면서 나무니까 어떻게 공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거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공한 것이요, 여려한 것이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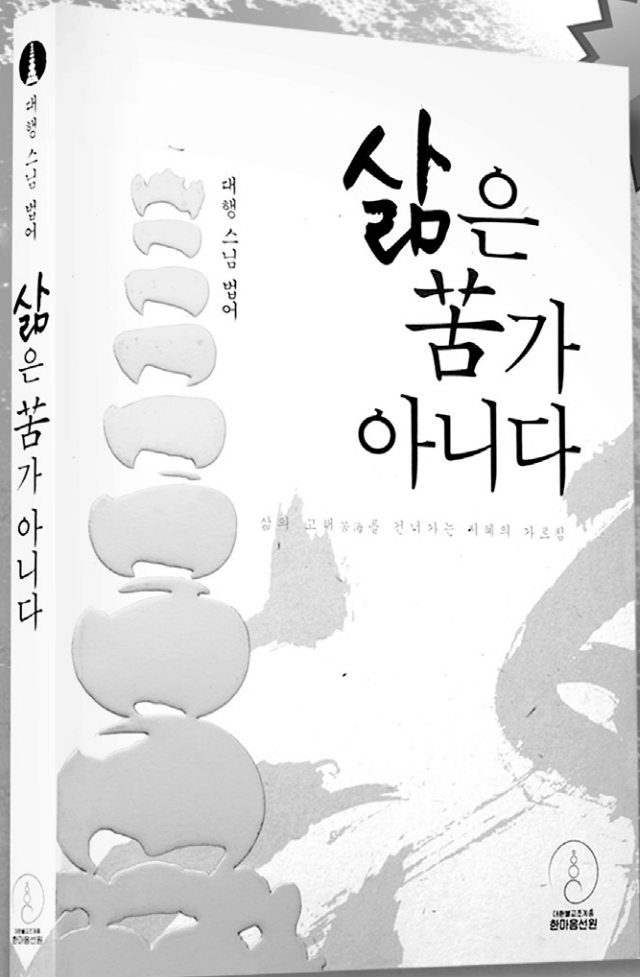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고정되게 보고만 있으면 목석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고정되게 듣고만 있으면 귀머거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일거수일투족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대로 내가 한 바가 없이 여여하구나!' 한 것이 됩니다. 그대로인데, 그렇게 잊는 법과 아랫눈썹이 가깝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불구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그대로 여여하게 사시면서도 마음으로는 집착과 관습에 그냥 모두 얽매어 가지고는 오히려 마음이 자기를 붙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는데 말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제가 있습니까? 제가 있다면 내 뇌 보세요. 제가 없고 고정됨도 없고, 여기서도 집에 갔다 오시려면 한 발자국도 갔다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이 어디 놓여 있고 내 소지품이 어디 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얽매어서 트이질 못하고, 물리가 터지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등글지 못하고 이래서 길면 긴 대로 길다고 아단, 짧으면 짧은 대로 짧다고 아단,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별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짧으면 짧은 대로 내가 짧아 주고 길면 긴 대로 내가 길어 주고 등글면 등글 대로 내가 등글어 주고, 이 세상에 모두 높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라." 내가 배를 타려고 뱃사공한테 간다면 뱃사공이 높고... 내가 요즈음에 치과에 갔더니 말입니다. 치과 박사님이 제일 높습니다. 아무리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해도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안다고 해도 망상입니다. 개미 소굴에 가 보십시오. 개미 소굴에서는 개미가 높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모두가, 미생물에서부터 일체 만물만생이 다 평등하니라." 하셨겠습니까?

내가 생활할 때에 '우리는 항상 공했다' 하는 이런 말을 말로만 알지 왜 뜻을 모를까? 모두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평등하다 이러는 그 가운데의 뜻을 왜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억 광년을 거쳐서 사람까지 화해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26면으로 계속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수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풀 천수경(한글/영어)

10,000원 A5/287쪽